

주님 승천대축일 복음 나누기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사명을 부여하시다

(마태 28,16-20)

1. 성호경
 2. 시작성가(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
 3. 새로 온 사람 소개
 4. 준비기도<각자 자유롭게>
 5. 독서 (성경읽기) - 마태 28,16-20
-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16 열한 제자는 갈릴래아로 떠나 예수님께서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17 그들은 예수님을 뵈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18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 세밀한 독서 나눔

- 한 사람이 성경을 큰 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다 같이 큰소리로 읽어도 좋습니다)
- 모두 들은 후, 각자가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세밀히 읽습니다.
- 한 사람씩 특별히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아주 천천히 세 번씩 반복하여 외칩니다.
- 잠시 묵상 후 단어나 구절을 선택하게 된 동기를 돌아가며 발표합니다.

※ 묵상나누기

(말씀 나누기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특별히 체험 발표를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 ❖ 우리가 예수님을 뵈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닫혀 있었을 때를 나누어 봅시다.
- ❖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분의 인성이 하느님의 천상영역으로 결정적으로 들어감을 나타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심으로 이제는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의 눈에 직접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느낀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세밀한 독서가 끝나면 성경 해설 부분을 서로 돌아가면서 천천히 읽습니다.

< 성경해설 >

간호원들의 모범이라 할 수 있는 나이팅게일(1820-1910)은 크림리아 전쟁 때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많은 군인들을 치료해주었다. 그는 의사들이 포기한 환자조차 죽음의 공포를 덜어주고 새의 의지를 불어넣어 주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어떤 환자든지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실제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많은 환자들을 소생시켰다. 그녀는 군인들에게 「등불을 든 여성」으로 존경받았다. 종전 후 영국 국민들은 대대적인 환영식을 준비해놓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름을 바꾸어 몰래 귀국할 정도로 겸손한 여성이었다. 오늘날에도 국제 적십자사에서는 「나이팅게일」상을 제정해 세계 각국의 우수한 간호원에게 표창하고 있다. 간호원이 될 때는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고 있다.

크림리아 전쟁 때의 일화이다. 그녀는 병원의 마루를 닦고 있었다. 담당의사가 “시간 있으면 쉬도록 하세요”라고 하자, 그녀는 “이 손은 하느님이 주신 손입니다. 제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을 대신 하는 것뿐입니다”라고 대답했다는 유명한 이야기이다.

나이팅게일의 봉사활동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한 기자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했다. 나이팅게일은 “오직 하느님의 뜻에 나를 맡기고 사는 것뿐입니다”라고 짙막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일생 언제 어느 때나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며, 하느님과 함께 살아간 신앙인의 전형이다. 실제로 신앙이란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다. 신앙인의 가장 큰 은총은 하느님과 함께 살며, 그분의 보호하심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이팅게일은 참다운 신앙인이었다.

6. 안건토의와 공지사향 전달

7. 마침기도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8. 마침성가(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